



나성교회의 “나성 케어”는 교회 안팎의 환우들을 위해 매주 음식을 정성껏 조리하고 배달하는 봉사팀입니다. 올해 8월, 나성 케어팀이 3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 오신 봉사자들의 간증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환우들의 간증문을 함께 모았습니다. 이 글들을 통해 많은 은혜와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 나성케어 사역 소개

나성케어 사역은 교회에 출석하던 한 권사님의 유방암 3기 진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나름 건강 관리도 하고 신앙 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중, 병원으로부터 유방암 3기 확정 통보를 받고 한동안 마음속에서 치솟는 원망과 분노, 절망감, 두려움 등으로 몸도 가누기 어려워 하셨습니다.

그 무렵, 권사님의 소식을 접한 이웃 교회의 암 환우 케어사역 심방팀이 집을 방문하여 암 투병에 필요한 안내와 암 생존자들의 간증으로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었고, 투병 생활 중 식사와 투병 가이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권사님은 2년여의 암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기간 중 받은 봉사와 헌신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권사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 케어 사역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시작하여 받은 사랑을 암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강한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후, 권사님은 교회와 형제자매들에게 나성케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리며 함께할 것을 권하였고, 아무도 동참하지 않은 때에도 매주 집에서 죽과 물김치 등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홀로 사역을 감당할 때는 규모도 작고, 도움을 받는 이들이 미안함과 부담감을 느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후 교회 행정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주관 사역으로 지정해 주셨고, 지금은 매주 화요일 6-7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연 50회, 약 750명의 환우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 봉사자 간증

주님께서 나성케어를 3년 동안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봉사를 하면서 환우님들을 가까이 보니 그분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피하고 싶은 순간들, 남 몰래 흐르는 환우님들의 눈물 속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해 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 53:5)”

이 말씀대로 환우님들의 허물과 죄, 그리고 몸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음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계시는 환우님들을 위해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지극히 작은 음식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매들이 매주 모여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메뉴를 짜고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여 조리하는 모습은 마치 작은 천국과 같습니다. 주님이 이 사역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모두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듯 열심을 다 하는 모습은 참으로 귀합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봉사로 쓰임 받는 기쁨을 통하여 치유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하나 되어 음식을 만들고 기도합니다. ‘환우님들이 맛나게 드시고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 속히 완쾌되게 하소서. 이 음식으로 힘을 얻어 환우님들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저희들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환우님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작은 수고 속에 사랑을 담은 음식이 교회를 통하여 환우님들에게 큰 위로와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 환우분들 간증

나성 케어팀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매주 보내주신 정성스러운 식사와 기도를 통해 암투병 중에 있는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 몸의 회복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취장암 말기로 올 초만 하더라도 활동도 힘들고, 통증으로 매일을 고통 가운데 지내야 했었는데 지금은 고통도 거의 사라져 가고, 몸무게도 늘고, 식욕도, 소화도, 활동도 모두 호전되어 정상인처럼 회복돼 가고 있어서 함께 저를 섬겨 주셨던 나성 돌봄 사역팀들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뒤에서 중보기도와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그 수고를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성 케어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신 이 사역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참으로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영양 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보여주신 변함없는 헌신은 육체적·영적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소망과 사랑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단지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환우 분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므로써 개인과 가정이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우시고, 나아가 교우들의 장기적인 건강과 삶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시고 계시며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포장하며, 나누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담긴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분명히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역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 가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나성 케어팀의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